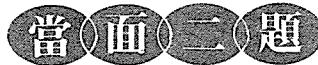


물리치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ist Association



裴昇鶴

一. 学制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의료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의사의 처방과 그 지도를 받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환자에 대해 물리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그의 업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그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로서 지녀야 할 필요한 지식과 속달된 치료기술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지식이란 환자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이고, 치료기술이란 물리의학적인 처치술을 말한다. 이들 둘다를 획득하기에 2년제 전문대학과정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필요한 지식이란 것이 대부분은 6년제 의과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학문의 수준과 비슷한 것이고, 물리의학적인 처치술이라는 것의 이론만하더라도 응용물리학의 높은 수준의 학리와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처치술을 익히는 데에도 많은 시간의 실습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문대학들의 대부분이 기초적인 학리를 교수할 수 있는 교수요원이 불충분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처치술의 간단한 것마저도 실습할 수 있는 자체실습병원을 갖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물리치료사에게 맡겨지는 환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환자들은 병원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물리치료사와 보내게 되는 경우가 혼다하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하는 물리치료사를 의지하게되고 믿게된다. 이들이 의지하고 믿으려하는 인격체이며 전인적인 치료사로서의 자격과 품격을 갖추는데도 2년제 전문대학과정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뿐만아니고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의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데도 2년제 전문대학과정뿐인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교수요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외국에서 4년제 대학의 물리치료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원과정을 이수한 분들과 한국에서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4년제 대학의 유사한 과에 편입을 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분들이 몇분 계실뿐, 나머지는 전문대학 졸업 정도의 실력으로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환자의 치료를 직접 담당하는 물리치료사가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논센스이며,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요원의 확보와 물리치료의학의 전문적인 연구요원의 확보면에서도 4년제로의 학제개편과 대학원과정의 신설이 시급하다 하겠다.

二. 물리치료소 설치

미국이나 서독 기타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인구 5천 ~ 1만명에 물리치료사가 1명 꽂인데 비해서 우리는 10만명에 1.6명뿐인 530명 정도의 물리치료사들을 갖고 있는 현재에도 그 $\frac{1}{3}$ 이 넘는 180여명이 면허를 갖고도 취업을 못하고 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국민이나 의료인들의 인식부족으로 그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점도 있겠으나 제도적으로 취업의 문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적어도 정형외과 전문의나 신경외과전문의 1 사람에 1~2명의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며, 다른 전문과목의 의사들의 경우도 2~3명에 1명 꽂아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는 설비의 어려움과 운영의 어려움을 내세워 의견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사회문제가 안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료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증거로 물리치료를 요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설유사불법의료시설 (지압원, 헬스크럽 등에 설치된 척추교정센타, 민간요법원, 혈도원 등 전국에 2,000여곳)과 한방이나 접골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무면허 물리치료사 술행위에 많은 돈을 내고 찾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또한 사전에 예방될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구로 세상을 살아가고, 산전의 산모에 대한 물리치료는 뇌성마비, 분만시 상지마비 등을 예방할 수도 있으며, 장애자의 초기발견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주위에 물리치료시설이 없거나 물리치료의 기회를 얻지못해 사고를 당한 후 1차 진료후 계속적인 물리치료를 하였을 때 예방 및 교정될 수 있는 환자가 일생을 불구로 보내게 되거나 사전에 간단한 물리치료로 예방될 수 있는 기질적인 장애를 그냥 두어 나중에 수술을 하거나 영원히 불구가 되는 예는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고 하여도 제도적으로 병·의원에 물리치료실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면 자격과 시설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거나 연수교육 등의 과정을 이수한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물리치료실의 설치를 허가함은 바람직하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합동지정 물리치료소 설치」 방안으로써 1개의 원의 힘으로는 물리치료실의 설치와 물리치료사의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개의 의원들을 합하여 합동 물리치료소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물리치료소의 허가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전속 감독의사가 있는 몇 안되는 종합병원의 물리치료실의 경우도 의사들이 치료업무의 감독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감독과 교육에도 그 소임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밖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병의원 (100여곳)에서도 처방의뢰에 의한 치료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만 잘 만들면

→ 4 면에 계속

■ Lumbar disc displacement의 manipulation

서울대 학병원 오승길

Lumbar joint에서는 articular process가 facet joint에서 이루는 결합상태로 인하여 rotation movement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5th level에서는 구조적으로 어느정도 rotation movement를 허용하고 있으나 ilio lumbar ligament가 이 rotation movement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로는 lumbar joint 내에서 rotation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lower lumbar level의 reduction에 rotation strain technic을 적용하면 매우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 Rotation strain technic 1

환자는 통증이 없는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는다. 수직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각도로, 가능한 정도까지 pelvis를 forward rotation하고 thorax를 backward rotation한 다음 위쪽에 있는 다리를 90° hip flex 하여 femoral trochanter가 돌출되도록 놓고 아래쪽 다리는 곧게 뻗고 있다. (만약 통증이 없는 쪽이 오른쪽이어서 오른쪽을 향해 누웠다면 윗쪽다리는 왼쪽다리가 되고 아래쪽 다리는 오른쪽다리가 된다)

시술자는 환자 등뒤쪽으로 허리에 위치하여 한쪽 손의 heel로는 환자의 greater trochanter를 밀고 다른 손으로는 환자 shoulder의 front에 놓는다.

(만약 오른쪽을 향해서 누웠다면 시술자 왼손으로는 환자 왼쪽 greater trochanter를 넣고 오른손으로는 환자 왼쪽 어깨 앞을 누른다).

시술자의 body weight를 이용하여 환자의 thorax는 위쪽으로 pelvis는 아래쪽으로 밀어 힘을 가함으로써 lumbar joint에서 distraction이 많이 일어나도록 한 다음 rotation을 향해 힘을 증가하여 몇초간 누르고 있다가 시술자 body를 갑자기 앞쪽으로 구부림에 의해서 full rotation을 시킨다.

* Rotation strain technic 2

환자는 통증이 없는 쪽을 아래로 하여 옆으로 눕는다. 같은 각도로 thorax를 forward rotation하고 pelvis를 backward rotation한다.

위쪽에 위치한 thigh는 hip extension 시키고 아래쪽의 thigh는 hip flexion 한다. 시술자는 환자 등뒤쪽 허리에 위치한다. 한손으로 iliac crest anterior part에 놓아 아랫쪽으로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acromion에 가까운 scapular spine을 hand heel로 밀어 올린다. (만약 환자가 왼쪽을 향해 누웠다면 시술자 왼손으로 환자 오른쪽 shoulder의 scapular spine을 밀어 올리고 오른손으로는 환자 오른쪽 iliac crest anterior part를 아랫쪽으로 누른다).

시술자는 body weight를 환자에 대해 수직으로 가해서 thorax와 pelvis에서 strong한 distraction이 일어나도록 한다. 점차 rotation 쪽으로 힘을 증가시

켜 최대한으로 rotation을 시켜서 몇초간 있다가 body를 갑자기 아래로 구부림에 의해서 full rotation이 일어나도록 한다.

* Rotation strain technic 3

환자는 엎드려서 통증이 있는 쪽의 pelvis가 backward rotation되도록 twist 시킨다. 시술자는 환자 등뒤쪽으로 허리 위치에 서서(만약 환자 왼쪽에 있다면) 왼손을 가능한 벌려서 환자 오른쪽 shoulder 위에 놓고 body weight로 눌러서 thorax를 치료대에 밀착시킨다. 오른손으로는 환자 오른쪽 knee를 감아쥐고 hip을 45° flex시키고 full abduct 시킨다. 시술자의 왼쪽무릎으로는 환자의 왼쪽 buttock을 눌러지지하고 thorax를 오른쪽으로 재빠르게 rotation함으로서 왼쪽 팔의 환자 shoulder를 누르는 힘을 강화시켜 환자 thorax를 더욱 치료대에 밀착시키는 동시에 오른쪽 손으로는 환자의 femur를 이용하여 환자 pelvis를 backward로 갑자기 끌어당긴다. 이렇게 함으로써 lower lumbar spine에 rotation strain을 가한다.

* Rotation strain technic 4

이 방법은 hip joint를 이용하게 되므로 hip joint arthritis 병력이 있는 환자나 femur neck의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사용하면 안된다.

환자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통증이 있는 쪽을 위로 하여 시술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옆으로 누워서 무릎과 hip을 구부려서 Halt lying position을 취한다.

시술자는 환자 발을 향해 마주보고 환자 허리위치에 선다. 그곳에서 시술자는 자신의 arm이 shoulder에 대해 수직이 되도록 늘어뜨려서 환자의 shoulder 위에 놓고 누른다. (만약 환자가 오른쪽을 향해 옆으로 누웠다면 시술자의 왼손으로 환자 오른쪽 어깨를 누른다)

시술자의 arm과 shoulder와의 각이 90°가 안되면 Body weight를 충분히 이용할 수가 없어진다. 그런 다음 시술자는 오른손으로 환자의 통증이 있는 쪽의 다리를 flex 시켜서 환자 body를 가로지르도록 adduct 시켜놓고 시술자의 forearm을 supination하여 palm을 환자 무릎 외측 바깥쪽에 놓고서 바닥을 향해 아래로 누른다.

이렇게 하여 시술자는 왼손으로는 body weight를 이용하여 환자 shoulder를 눌러서 thorax를 고정시키고 오른손으로는 femur 전체 길이를 lever로 이용하여 단순히 그 유힘으로만 아래로 누른다.

* Rotation strain technic 5

시술자는 통증이 덜한쪽의 환자 허리위치에서 환자 hip을 마주보고 선다. 만약 오른쪽이 덜 아픈 경우라면 시술자는 환자 오른쪽에 서고 환자 무릎과 hip를 구부린 상태로 왼쪽 thigh 위에 오른쪽 thigh를 올려놓아서 cross leg를 만든다 (속칭 다리를 꼬아서 앉는 자세). 시술자의 왼손으로 환자의 왼쪽어깨를 눌러 고정시키고 오른손으로는 환자의 왼쪽 thigh를 감아쥐어서 시술자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아래쪽으로 눌러서 lumbar가 side flexion하는 동시에 rotation 되도록 한다.

* reference : James Cyriax & Gillean Russell의 Text book of orthopaedic Medicine.

회장단 동정 및 협회현황

1. 1981. 8. 21 정진우 회장, 강정구 이사, 함용운 이사, 최치우 선생님 협회사무국 방문.
2. 1981. 8. 24 국가고시 출제위원들에게 보사부 공문 발송
3. 1981. 8. 25 1) 협회 회원 취업, 미취업 현황파악.
2) 새한 합작 김동혁씨 협회사무국 방문 : 협회지 발행에 대한 협조논의.
4. 1981. 8. 26 1) 이소영 전북지부장 협회사무국 방문.
2) 제 5호 협회지 대학서점에 인쇄의뢰.
5. 1981. 8. 28 1) “이사회 개최의 전”에 대한 공문발송.
2) 제 5호 협회지 교정작업
6. 1981. 8. 31 1) “자지부 소속회원 면허번호 확인 의뢰 및 입회확인”에 대한 공문발송.
7. 1981. 9. 1 1) 의료보험 관리공단 회보 2부 접수
2) 서울예수병원 물리치료실 개설신고에 대한 공문발송.
8. 1981. 9. 2 김홍동 회원 서신 접수와 그에 대한 답장발송.
9. 1981. 9. 4 1) “정화지”(9월호) 접수.
2) TV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통연락.
0. 1981. 9. 5 제 4차 정기 이사회.
장소: 서울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시간: 1981.9.5 3:00 PM ~ 4:30 PM
참석: 정진우. 양성수. 함용운
강정구. 황환익. 배승학
박찬의. 오경환. 김용주
최치우
의제: ① 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편성.
② 학회지 발간 준비모임 - 원고청탁, 원고접수마감일 결정.
※ 학술대회
장소: 인천 자동차회관
일시: 1981.11.14 2:00 PM ~ 1981.11.15 5:00 PM
1. 1981. 9. 8 1) “제 3호 학회지 원고 제출에 관한전”. 각 병원 물리치료실장 및 학교과장들에게 공문발송.
2) 제 5호 협회지 발송작업
- .2. 1981. 9. 9 경북지부회 회비 및 가입비와 납부자명단 접수.
13. 1981. 9. 10 경북지부 협회비 납부사항 확인의 전”에 대한 공문 경북지부장에게 발송.
14. 1981. 9. 14 서독 P.T 3인파 협회 간부진 연석회의 겸 저녁만찬.
참석: 정진우. 김용주. 최치우
석일현. 배승학. 표성봉
통역: 손현주(국립각심원)
서독PT: Frau Peter
Frau Block
Frau Meenen
장소: 세종문화회관.
15. 1981. 9. 17 “협회 사무국 방문요망” 서신 미취업 회원에게 발송.
16. 1981. 9. 18 “한성의원 물리치료실 개설신고” 공문접수 및 발송.
17. 1981. 9. 26 강원지부회 정기총회 및 학술회 개최
장소: 춘천어린이회관
참가자: 정진우 회장, 배승학 총무이사

공지사항

1981년도 학술대회, 회원총회 및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1981년 9월 5일 오후 3:00 ~ 5:00에 서울대학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열린 제 4차 정기 이사회에서는 학술대회 일정 및 예산을 결정하고 회원총회와 대의원 정기총회를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다음은

1. 일정: 1981.11.14 (土) 오후 2:00 ~ 1981.11.15 (月) 오후 5:00

<제 1일>

1:00 ~ 2:00	등록접수	오전 10:00 ~ 오후 5:00
2:00 ~ 2:30	개회	강화관광 및 회원 친목
2:30 ~ 3:30	특강	야유회
3:30 ~ 5:30	학술대회	
5:30 ~ 7:00	회원총회	
7:00 ~ 8:30	식사 및 휴식	
8:30 ~ 10:00	대의원 정기총회	

<제 2일>

1. 장소: 인천 자동차회관 (제물포역 앞)
1. 예산: 회지발간비 200만원

학술대회 안내장 및 초청장	50만원
2일간 숙식비 및 간식비	100만원
준비 및 예비비	50만원
총계	400만원

1. 참가등록비: (숙식비 및 자료대 포함)

일반회원	2,000원
대의원	3,000원
준회원 (학생회원)	1,000원

< 미납회비 납부자 >

박정복 (No. 655. 80년) 김해석 (No. 539. 80년)

< 운영비 찬조 >

석일현 ₩10,000	정진우 ₩10,000
김용주 ₩10,000	최치옥 ₩10,000
표성봉 ₩10,000	배승학 ₩10,000

< 84년까지 회비 선납 >

전우매 (No. 675)

< 81년 회비 납부자 >

이인숙 (No. 708)	박정복 (No. 655)
양택용 (No. 483)	김해석 (No. 539)
이영숙 (No. 703)	윤영자 (No. 312)
이영준 (No. 769)	김여경 (No. 303)
장영실 (No. 379)	

< 81년 입회 등록자 명단 >

인혜경 (No. 933. 동남보전)
 허완열 (No. 828. 대구보전)
 홍성연 (No. 807. 대구보전, 81년회비 미납)

1면 계속

세부·운영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또한가지 방법은 이미 외국에서는 물리치료사들이 단독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 개업하고 있고, 의사의 처방 의뢰가 아닌 의료적인 진단에 의해 물리치료사 스스로 평가와 치료계획 및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간단한 소염제와 진통제는 환자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점차로 학제의 개편과 함께 P.T 단독으로 물리치료소를 설치 운영토록 함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본회 총무이사겸 사무국장)



강원도 의료기사 연합회 회장
 본 협회 강원지부장이신 김기
 회원 당선.



『광고』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가톨릭 신우회 (가총)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가톨릭 신우회 (가총)에서는 물리치료사협회 회원들중에서 가톨릭 신자나 예비 신자들의 회원가입을 회망하고 있으며 봉사활동과 친목활동으로 신심과 지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하여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뜻이 있는 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대상 :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회원으로 가톨릭 신자나 예비신자
2. 접수처 : 을지병원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3-1 물리치료실내 강정구 (전화 261-1631~4))
3. 가입방법 : 업서로 다음 사항을 적어 신청하시 됩니다.

① 면허번호	③ 생년월일
② 성명 및 본명	④ 주소 또는 근무
4. 접수기간 : 1981. 11. 30 일까지

《준비위원》

석일현 (영락병원) 이영태 (성모병원)
 정진우 (서울대학병원) 백진 (인천기독병원)
 유인규 (우석병원) 강정구 (을지병원)
 최치옥 (국립의료원)

인사말씀

물리치료 기구 만들기 십여년, 그동안 여러 선생님의 지도에 감사드리며, 다음 회사의 한국대리점으로 보다 좋은 제품을 공급해 드리기로 다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미국 Preston 의 정통파 물리치료기구
 화란 ENRAF 의 섬세한 전자치료기구
 영국 Medelec 의 세계 최고의 EMG

신간안내

- ※ physical rehabilitation for daily living (ADL)-Buchwald 5,000
- ※ Soft Tissue pain and Disability-Rene Cailliet M.D 5,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빌딩 326호)
 도서 출판 대학서림 TEL 723-7154

새한合作株式會社

代表理事 金東赫
 서울事務所 110 서울特別市 鐘路區 東崇洞 1 의 31
 電話 서울 (02) 762-5659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36 (신한병원내)
 산단 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TEL. 724-0926, 4707